

# 바락 오바마 미대통령의 탄자니아 방문

작성자 : 양철준 (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)

작성일 : 2013년 7월 30일

## ■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 탄자니아가 포함된 배경

-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네갈, 남아공화국, 탄자니아를 순방
- 탄자니아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 중 모범적 사례로 인식
  - 정치적 안정과 평화
  - 다당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적 절차 정착
  - 고도의 경제성장 실현
- 자카야 음리쇼 키크웨테 탄자니아 대통령은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백악관에 초청한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 원수
- 아프리카 대륙에서 탄자니아가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
  - 동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와 더불어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음
  - 탄자니아는 인도양과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통로
    - 대호수지역과 중동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나라
  - 잔지바르섬은 인도양의 전략적 장소에 위치
  - 2000년 빌 클린턴, 2008년 조지 부시 대통령 탄자니아 방문
- 중국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진출 및 투자에 맞서는 방문으로 해석
  - 미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으로 등장한 중국에 대한 견제 (2012년 2000억 달러 규모)
  -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금년 3월 탄자니아를 방문
    - 탄자니아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하고 나서 방문한 두 번째 국가
  -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탄자니아 방문 시 8억 달러에 달하는 17건의 계약 체결
  -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에 맞서는 포석
  - 중국과 일본의 공세적 아프리카 진출을 견제
- 미국 민간기업들의 아프리카 투자 기회 확대
  - 700명의 기업인과 투자자들 대동
  - 경제개발, 투자,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
  - 미국은 향후 5년간 아프리카 대륙의 전력 개발을 위해 '파워 아프리카

- 이니셔티브(Power Africa Initiative)'라는 프로젝트에 70억 달러 투자 예정
  - 제너럴일렉트릭(GE) 등 민간 기업도 9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
  -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
  - 탄자니아, 가나, 케냐, 라이베리아, 나이지리아, 이디오피아 등 6개국에서 실시
  - 프로젝트 완성 시 2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에게 전기 공급
  -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 거주 아프리카인들에게 혜택
- 식량, 보건, 민주주의의 신장과 같은 발전 과제 논의
- 탄자니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확보
  - 탄자니아는 석유, 가스, 우라늄이 풍부히 매장
  - 천연자원 선점을 위한 각축의 성격
- 탄자니아는 미국 대외 원조의 최대 수혜국 중의 하나
  - 하부구조 건설 사업 등에 집중

## ■ 방문 기간의 주요 활동

- 원조를 넘어 투자와 교역의 확대를 통한 성장 방안 논의
  - 원조와 일방적 지원이 아닌 교역과 동반자 관계의 구축 강조
  - '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아프리카(Africa for Africans)' 역설
- 식량안보, 교육, 보건, 전기, 상수도 시설 개선 약속
-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심비온사와 제너럴일렉트릭사간 음트와라(Mtwara) 전력 증산 계약에 합의
- 미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교역 동반자 관계 설정을 위한 'Trade Africa' 발표
  - 아프리카와 미국, 세계 시장에서 통상과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
  - 지역적 차원에서 동아프리카공동체(EAC) 국가 간 경제와 통상 관계 강화
    - 상품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관세 행정의 간소화
  - 아프리카 성장기회법(AG-A)을 통해 미국에 대한 동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이 40퍼센트 이상 증대될 것으로 전망
- 아프리카 영부인 정상회담에 참여한 미셸 오바마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도 여성에 대한 투자 증진을 역설
  - 보건, 교육,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역량 강화
-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1988년 다르에스살람의 미대사관 폭탄테러 현장에서 추모식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에게 헌화
  - 테러와의 전쟁에서 공조
- 콩고민주공화국(DRC)의 평화 정착 문제 논의

- 평화 정착을 위한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
- 아프리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노력
- 야생동물 거래 금지를 위한 방안
  - 연간 7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상아와 코뿔소 뿔의 국제거래 중지를 위한 노력에서 공조
  - USAID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술 지원 예정

## ■ 오바마 대통령 방문의 의미와 전망

- 미국과 중국 국가원수들의 잇단 탄자니아 방문으로 탄자니아에 대한 대내외적 위상 제고
- 탄자니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로 관광부문의 성장 기대
- 미국과 중국의 관심 속에서 균형을 맞추고 국익을 도모하는 실리 외교의 중요성
- 국내적으로 심각해지는 부패, 빈곤, 빈부 격차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에 상응하는 대책 절실
  -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
-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혁명당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포용적인 자세로 귀를 기울일 필요
- 교역 증진과 투자 확대가 청년 고용 창출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필요
- 투자 유치를 위해 안정적 전력 공급, 도로 등 하부구조 개선, 숙련된 기술 인력의 부족은 해결해야 될 문제

## ※ 출처

- \* <http://www.mwananchi.c-.tz>
- \* <http://www.ippmedia.c-m>
- \* <http://www.allafrica.c-m>
- \* [http://www.africareview.c-m/Analysis/Why O-bama O is O visiting O Tanzania/](http://www.africareview.c-m/Analysis/Why-O-bama-O-is-O-visiting-O-Tanzania/)
- \* <http://www.thecitizen.c-.tz/>
- \* <http://www.raiamwema.c-.tz/>